주식투자 후기

구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30세 남자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시작했는데, 유튜브 등에서 동냥하듯 기초지식을 배우며 투자를 했지만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세대금 등의 이유로 모든 주식을 청산한 상태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배당이 좋다는 종목을 샀지만, 배당일 이후 하락 국면에서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지인이 또 다른 종목을 추천해줬고 그 역시 직접 알아보지 않은 채 매수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차곡차곡 하락했고, 그 때 내가 사고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팔고 오르는 것이 훨씬 속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론 없이 체득한 기술이었지만 이후, 성적은 점점 좋아지는 듯했습니다. 눈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전까지 ETF나 리츠 같은 상품이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작은 돈이나마 꾸준히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급격히 나빠진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봄까지, 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상승세에 탈 수 있었을 시기에 주식을 아예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음성지원으로 한정적이나마 주식거래를 하였고, 물론 큰 이득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금 기준의 수익률 두 자릿수 달성이라는 사실은 제게 자신감을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앞두고 주식을 전액 매도해 전세대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외국인의 공격적 매도가 시작될 즈음 모든 한국 주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우선 증권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NH 투자증권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하여 중증 시각장애인이 되어서도 해당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비밀번호를 누를 때에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감으로 키패드를 눌러야만 합니다. 때문에 다시 주식을 시작할 때에는 비교적 접근성의 문제가 적은 애플리케이션을 추천받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불편한 점은 '예측'보다 중요한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빠른 뉴스 캐치인데, 이를 따라가는 것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라디오로 뉴스를 듣는 것이 취미였지만 복직을 하며 업무와 병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워,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된다면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트, 그래프 등 추이 확인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해당 종목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시인성이 좋은 것은 차트나 그래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다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발로 뛰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일은 매우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수강 등으로 주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금 주식 비중을 높여가기 위한 이론적인 기초를 다지며 적금, 공제회 외에 분산투자를 실현하여 경제적인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한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10살 때부터 용돈을 모아 11살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이란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열 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도서를 통해서였어요. 이 도서는 주식과 펀드에 대한 정보를 초등학생이 알기 쉽게 이야기 형태로 편찬한 책이었어요. 그 계기로 주식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용돈을 모아 주식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종목 정보와 매매 시점을 알려주셨고, ARS 전화를 통하여 주식 매매를 했어요. 초기에는 행운도 따라줘서 한 종목 상한가 두 번의 행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경제tv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가며 매매 기법을 배웠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소한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공부하며 해외주식에도 투자 영역을 넓히려고 준비 중인데, HTS나 MTS의 해외주식 매매 여건이 좋지 않아 1년간 미루다가 toss라는 플랫폼에서 해외주식 투자 영역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 16년간 주식 투자를 하며 시각장애인으로서 불편했던 점은 종목의 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재무제표, 영업이익 등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가 이미지나 그래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는 점, HTS나 MTS로 매매할 때 수수료와 유선상 매매 수수료가 10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웹접근성의 부재로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움증권의 영웅문이나 toss 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등 접근성이 갖춰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가 증가하면서 문제점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유선상 매매 시에도 시각장애인임을 입증 가능하다면 감면해주는 증권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채 현황 등을 그래프와 텍스트로 제공해줘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고 투자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여 투자 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40대 남자로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주식거래는 2017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식에 뛰어들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문에 의존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확인하거나 기업 정보수집에 어려움도 많다보니, 보니 묻지마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어느 타이밍에 매도 매수를 하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2017년도에 매수한 종목 가운데 손해가 40%인데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재산 증식을 이룰 때도 저는 큰 성과 없이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더 이상 손해 보지 않는 주식을 하고 싶습니다.

최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주식방송들을 보며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15년 전에 시작했지만, 실제 투자 경력은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주식 관련 책을 구할 수 없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을 따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친구들을 따라 파생상품 ELW를 해보았으나, 결국 큰 손실을 보는 친구들을 보면서 손을 떼고 그 이후에는 중국 펀드에도 가입해봤으나 별로 수익을 못보고 주식투자를 접었습니다.
그러다 약 8년 정도 전부터 우연히 한국경제 TV를 시청하면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의투자겸 공부겸 주식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은행 저금이나 적금보다는 투자가 낫겠다 싶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국경제TV를 보며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밤마다 미국 주식 동향도 보고 당일의 이슈들에 대한 리뷰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조차 못 보는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다들 그렇듯, 차트분석도 어렵고 재무제표를 볼 수도 없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알 수 없어 매우 답답합니다. 가끔 지인들에게 내 종목들 차트나 그래프가 어떤지 수급 동향이 어떤지 물어 보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다보니 서울처럼 강연회가 자주 있지도 않고, 부산 벡스코에 누가 오신다 하면 늘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워 투자와 정보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몇 년 전 시각장애인 학술 세미나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시각장애인 투자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그래프나 차트 분석만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과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졌고, 시각장애인이라 차트 분석, 그래프 분석은 못해도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매년 주도주 그룹이 무엇인지 잘 캐치하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다양한 섹터에서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 한 종목당 소액의 투자만 이루어지기에 리스크는 적지만 큰 수익은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대비 수익률이 낮은 것 같고, 투자금 대비해서도 이익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오늘의 장 분위기들을 체크할 수 없어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2022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싶습니다. 현재 25개 넘는 종목들에 아주 작은 소액 투자들만 하고 있어서 용돈벌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젠 진짜 투자다운 투자를 하고 싶고, 투기적인 주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주식 투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했어요. 주식투자 경험이 짧지는 않지만,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매월 ETF 분할 매수를 하고 괜찮은 공모주가 있으면 청약을 하는 편이죠. 개별 주식 매매는 많지 않고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이유는 사촌동생 때문이었어요. 사촌동생이 전업투자자였는데, 주식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면서 종목을 추천해주더라고요. 그 계기로 주식투자를 하게 됐죠.
시각장애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증권회사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쉽게 거래를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주식거래를 위해 반드시 컴퓨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원하는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가 어렵죠. 또 정보를 얻는 것에 있어서도 불편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주로 ETF를 거래해요.
시각장애인에게 MTS나 HTS는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기능이라도 쓸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 / 중증 시각장애인, 여성**

저는 전맹이구요, 헬스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주식투자를 시작한 건 2년 전쯤이에요. 그 후로 지금까지 조금씩 주식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겁이 많아서 과감한 투자는 못하고요,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펀드 투자를 하다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식투자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든 점은 차트 보기가 힘드니까 매번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데요, 그게 가장 어려운 점 같아요.

오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주식투자는 IMF 때 처음 시작했어요. 이후로 2008년경에 펀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 투자를 권유했던 은행 직원이 그 펀드에 투자했던 대부분이 손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경력이 24년이 넘었지만, 과감한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유행하는 테마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 중심으로 종목을 고르고 일단 매수한 다음에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보유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통해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그다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산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채권에 투자해 왔구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채권 수익률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이 녹아 없어지는 문제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 얻기 가장 좋은 방법이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투자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1990년대 말에는 대부분 전화로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HTS나 MTS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 증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ARS를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통화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또 상담원에 따라서는 주문을 접수할 때 쫓기듯 눈치를 보아가며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증권사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MTS나 HTS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토스 증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편하게 주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증권사들도 이러한 편리성을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전화로 주문을 하더라도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주문 대기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문제로 제때에 주식거래를 체결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도 대기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50대 남성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주식은 5~6개월 정도 모의투자를 해보고, 2006년에 처음 실전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미수 사용 등 잘못된 투자방법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고 빚까지 져서 투자를 중단했다가, 2017년에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의 아니게 지난달 직장을 퇴사해서 전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투자를 해서 새로운 인생 역전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각오로 시작했어요. 또 이 주식투자가 성공만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학습과 직접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요.
몇 년 전까지는 워렌 버핏이나 존리 대표가 주창하는 장기 가치투자를 지향했으나, 개인적으로 또 한국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는 단기나 중기로 12~2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스윙투자 성격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는 수천억 수조원을 굴리는 고액 자산가나 선진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트렌드를 읽고 주도주에 집중투자하고 적절한 목표 수익이 되면 즉각 매도하는 투자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HTS와 MTS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기술적 분석을 신속하게 거래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ARS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거래 수수료가 HTS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은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일부 증권사 외에는 비슷할 거에요. 또 금융 등 주식 관련 서적들이 차트와 도표가 많아서 대체도서 제작 시에 이 부분을 잘 표현하지 않고 제작을 해서 지식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장 불편한 점이었어요. 증권회사들이 HTS와 MTS의 접근성을 좀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접속해서 HTS와 MTS를 활용해서 정보도 얻고 거래도 가능했으면 합니다.

손/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50대 초반의 중증 약시이며,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주식투자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한번 해 봐야지 해서 시작했어요.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한국주식, 미국주식, 비트코인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고팔고도 자주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잃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하는데 그렇질 못했죠. 지금 미국주식도 20%하향된 상태라 속상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서 주식투자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차트를 보기 힘들어서 매번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그 부탁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주로 toss증권, KB증권, 티끌을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toss증권이 화면글씨를 확대하면 원화나 달러 등 확인이 가능해서 그나마 시각장애인의 사용이 용이한 편입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전화로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해서 아주 많이 불편해요. 저 같은 약시나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글자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표는 흰색이나 회색, 검정색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원화/달러표시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시각장애 남성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시작한 계기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기사님의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게 되었는데, 책을 통해 주식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단타와 장기 보유를 동시에 추구하며 안정적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비교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업 분석, 차트 확인, 주식 거래 시 매체 활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 정안인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별도의 시간을 만들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차트 분석, 파동 이론 등을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워 수박 겉핥기 주식 공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주식 거래 시에도 HT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음성소프트웨어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로 ARS로만 주식 거래를 하는데 그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시각장애인도 주식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정안인과 동일한 매체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 흐름에 맞추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주주의 국민들이 꼭 거쳐야 할 플랫폼이 증권사입니다. 그 만큼 사회적 책무성도 크다고 봅니다. 장애인도 소중한 주주이자 증권사의 고객입니다. HTS, 모바일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 등 일반인이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매체들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증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건의해보았지만 금융거래이고 보안이 철저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었습니다. 웹 접근성 지침만 준수해도 가능하고 충분합니다. 증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채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 남성입니다. 주식투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 주식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이 지인이 주는 정보 제공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수익은 없이 3년 만에 겨우 원금을 회복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가 주식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보았고, 은행의 이자 소득이 거의 없는지라 동료 교사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배워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주식투자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한 공부 없이 지인이 추천해 주는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성향이며, 매수나 매도 역시 분산 방식보다 일괄 매수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종목 정보, 투자 정보, 주식 용어 등 관련 지식을 유튜브, 경제 뉴스, 경제 전문 티브이 채널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며 투자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황 분석을 위한 차트를 보지 못해 매매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6개월 전부터 증권플러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당일의 시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는 있지만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종목별 개별 주식투자 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문자나 카톡으로 투자 매니저들이 수수료를 매개로 투자 권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개별 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황 분석에 필요한 차트를 점자 그래프로 이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 / 경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며, 사내 헬스키퍼로 근무하고 있는 저시력 안마사입니다. 주식투자를 한지는 대략 9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큰 손실을 보기도 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급등하는 주식시장에서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써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시력과 전맹 모두 정보의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시각장애인들도 정보접근이 보다 수월해졌으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이 어렵고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같은 경우 저시력은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기가 어렵고 전맹들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수급 같은 경우도 이미지로 표시되거나 음성 엔진이 읽어주지 않아서 끝물에 들어가거나 하락 중일 때도 판단을 내리지 못해 손해를 보는 시각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전맹의 경우는 음성 ARS나 음성엔진을 사용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늦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저시력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를 잘못 보아서 실수가 생긴다거나 수량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량 입력할 때 숫자를 잘못 확인하여 실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매도와 매수를 잘못 봐서 거래 실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일반중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주식투자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주식투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주식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모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주식투자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도래하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이, 심지어 아버님마저도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평소에 주식투자 방법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익혀놓았을 때 2020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나의 수익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투자를 초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소수 종목 또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며, 대형주 보다는 중형주나 소형주 매매를 선호합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하여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어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은 몰라도, 주로 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한국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도 중요 하지만,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단기 매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차트와 재무제표의 파악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차트의 분석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한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그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이나 영상을 보면 차트와 재무제표를 많이 제시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제시되는 차트와 재무제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해서 주식투자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를 할 때에도 장중에 차트를 보며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도 각 기업 및 종목의 차트와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최대한 확보된 HTS나 MTS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하 / 중증 시각장애인 남성**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전맹 시각장애인 남성이며,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사실 저는 '주식투자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또 직장생활에 짬을 내기도 힘들어서 주식투자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투자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도 했지만 시각장애인인 제가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더군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문제까지 여러 가지 장벽으로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 투자 성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을 통해 자산관리를 해왔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형태로 투자하고 싶고, 장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적금을 탔지만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가 많이 나가고 있었지만 근근이 적금을 부어오던 것이 만기가 되어 찾게 되었는데, 장애인 우대 적금임에도 결과적으로 제로금리 시대라 적금 이자는 코웃음 나오는 수준이더군요. 그래서 주식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서적을 검색했더니 많은 책이 검색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를 위한 책을 하나 정해 하나씩 읽어가며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실전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IT로 열린도서관의 이벤트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서 보급도 해주고, 촉각 자료도 제작해 주신다니 제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를 읽는 방법을 설명으로만 들으니 개념은 대충 알겠는데 실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감이 잡히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제작된 도서가 하루 속히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투자를 해보려하니, 우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 기업 관련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색하는지 잘 모르고, 방대한 인터넷 자료를 찾다보니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센스월드에서 뉴스 검색을 쉽게 하듯이 주식 관련 투자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코너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투자 관련 책을 읽어가며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메뉴를 살펴보는데 제가 능숙하지 못한 탓인지 정안인의 도움이 없이는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매도나 매수를 할 때 실수 없이 시각장애인 혼자서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증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장애인 접근성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험담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각자의 경험담이나 노하우를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